

중국, 신 에너지 개발 540조원 투입

풍력 비롯해 에너지원 R&D 강화 ... 건설·운영 국산화에 수출 확대

중국은 풍력을 비롯한 신 에너지원 개발을 위해 2020년까지 3조위안(54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영 중앙방송인 CCTV에 따르면, 중국 국가에너지국 신 에너지과 량즈펑(梁志鹏)과장은 베이징(Beijing)에서 열린 제4회 재생에너지금융논단에서 투자규모가 3조위안을 넘는 대형 에너지 개발계획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량즈펑 과장은 “풍력은 신 에너지원 가운데 하나로 집중 개발될 것”이라며 “발전량이 2020년에는 현재의 11배인 연평균 1억kW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전력공사 주융판(朱永凡) 사장은 “중국은 2008년 기준 894만kW인 풍력 발전능력을 2010년까지 2000만 kW로 끌어올려 세계 4위로 올라서고, 2020년에는 1억kW로 확대해 설계에서 건설·운영까지 모두 국산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Gansu, Neimenggu, Hubei, Dongbei 3성, 그리고 Jiangsu 해안지방에 1000만kW이상의 대형 풍력 발전소들을 건설하고 풍력 발전기를 비롯한 모든 설비를 국산화해 20%는 수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5/25>